

Nr. 2024 - 03-04

서예

---



Licht und Salz

# 세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편집부

**봄**은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봉오리가 터지고, 새 싹들이 머리를 내밀며 세상은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봄의 희망과 새 생명의 의미는 우리에게 '세례'라는 특별한 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물에 담그어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은총으로 빛을 받으며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세례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세례 받을 때의 마음가짐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삶 속에 봄의 따뜻함과 새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 22-25

형제 여러분,

22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23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결핍들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24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끄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25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1월 7일 민헌 사목회, 봉사자 임명장 수여식 1



1월 7일 민헌 사목회, 봉사자 임명장 수여식 2

## 세례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세례 소감 / 김수연, 박석정, 송지형, 황나현

-

공소글 / 이상목 베드로



2024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설 ( Neujahr)

**3,4월 세례 (Taufe)**

5,6월 승천 (Himmelfahrt)

7,8월 피정 (Exerzitien)

9,10월 수확 (Ernte)

11,12월 이웃 (Nachbar)



2월 11일 설 미사 후 세배



2월 11일 설 미사 분향

# 은총의 사순시기와 사랑의 세례

허광철 요셉 신부

40일? 46일?

우리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四旬)은 40일로서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2월 14일 재의 수요일부터 3월 30일 성토요일 낮까지가 사순 시기입니다. 그런데 달력의 날짜를 세어 보면 46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전례상식이지요.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6개의 사순주일이 빠지면 딱 40일이 됩니다. 열심히 신자들이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 하는 것은 주님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대한 공경이요 신앙고백이 됩니다.

## 은총의 사순시기

우리 신앙인에게 사순시기가 있음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무언가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기에 참으로 고마운 시기입니다. 미사 중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인 '사순 감사송2'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 쓰게 하셨나이다."

어느새 사순시기 여정의 중간에 있는 나를 되돌아 봅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어떤 기도와 결심을 하셨는지요?

독일말로 사순시기는 Fasten Zeit입니다. 말 그대로 단식으로 표현되는 자기 봉헌을 통해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단식은 단순히 '밥을 안먹고 참는다'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단식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제 삶의 영적인 일상을 깨뜨리는 주범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이번 사순시기 밤시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시청을 '단식'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이 '단식'을 시작하고 나니 기도와 독서와 운동 시간이 월등히 많

아 졌습니다. 사순시기 뿐 아니라 계속 해나가야 할 '단식'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은 이 사순시기에 단식과 더불어 기도와 자선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마태 6,1-18 참조). 자신의 욕망을 끊고 하느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영혼이 되고, 기도를 할 때 자연스레 이웃사랑의 눈을 뜨게 된다는 자연스런 신앙의 메카니즘입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인간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인 나를 되돌아 보며 성찰하고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wagen) 이 사순시기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은총의 시기가 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이 아름다운 시기를 봄날을 기다리듯 즐기시기 바랍니다.

### 십자가의 세례, 사랑의 세례

이 번 부활절에 뮌헨 본당에서 4명, 레겐스부르크 공동체에서 4명이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 발로 왔지만, '모든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요 뜻이었다' 고백하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일까요? 전례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일생 한 번 만 받을 수 있는 성사가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기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또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살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자신의 세례를 증명한다면 그 세례는 참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세례일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 (마르 10, 38)*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 매일 이 세례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례, 사랑의 세례!

세례를 받은 모든 이는 나의 권리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어드나 나는 하느님 닮은 '사랑의 존재'로 되어 갑니다. 이기와 욕망에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사랑의 얼굴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세례에 우리는 초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십자가와 사랑을 선택하여 '나의 세례'를 증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봅니다. 매일 나는 새로운 세례로 초대됩니다. 아멘. 



2월 9일 에얼랑엔 뉘른베르크 공동체 미사 후 세배 1



2월 9일 에얼랑엔 뉘른베르크 공동체 미사 후 세배 2



2월 9일 에얼랑엔 뉘른베르크 공동체 미사 후 세배 3



2월 9일 에얼랑엔 뉘른베르크 공동체 미사 후 단체 사진



2월 24일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미사 및 총회 1



2월 24일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미사 및 총회 2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4-21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수호천사

전영민 수산나

우 리 모두에게 각자의 수호천사가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나 위험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다. 천사는 하나의 이념이라 할 수 있으며 곤경에서 허덕일 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주는 개개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천사는 사람들의 상상속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란다.

나 자신도 이러한 마음안에 내재 되어 있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어려운 일로 수렁에 빠졌을 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큰 문제없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 보니 많은 시점에서 수호천사가 도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절망적이었을 때 삶의 길을 가르쳐준 그 때가 바로 수호천사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시기였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관조적일 때가 있다. 예견하고 있던 어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어느 순간 섬광처럼 빛날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단조로운 일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 같은 설레어지는 기대이며 우리를 경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련한 그리움을 갖게 한다. 그 그리움

은 우리 삶속으로 침투하여 본래의 고향을 예시해주는 신비로움이고 마음안에 확증을 주는 신의 섭리로써 나 자신이 실제로 이런 환희적인 체험을 맛본 것이다.

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아니면 벌써 그 이전에, 어떤 큰 힘이 나를 지배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상상력은 내 마음안에 자부심을 심어 주었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 어린 나이에 신의 존재를 감지 했다는 것이 참으로 맹랑한 일이었지만 하느님께서 그 때 그 나이에 나를 선택하여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신비가 었던 Meister Eckhart (1260-1327) 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신의 정기를 심어 놓았다고 하였다. 예컨대,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신을 찾고 신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독일말, Bildung - 이라는 단어 또한 그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형성, 조성, 교육을 뜻한다. 이는, 하느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인간의 본연을 뜻 하고 하느님의 숨

결로 인간과의 융합이 이루어 진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에 입교 하였고 우연이라고 는 하지만 그때 이미 나를 불러 주시어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고 확신한다. 그런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힘입어 영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뿐 만 아니라 내 삶을 온통 주님께 의탁하며 살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정신분석 학자이며 사회철학자였던 Erich Fromm (1900-1980)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잠깐의 사건이 아니다 오랜 과정이다. 삶의 목적은 완전하게 탄생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Tragödie - 비극 이라는 것이다.

삶이 의미하는 것은 매 초마다 탄생되어 가는 것이고 탄생을 끝나면 죽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삶을 사랑하는 자만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고 죽는다는 것은 다만 하나의 편견이고 속단일 뿐이라고 정리한다.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천주교 교리의 가르침을 떠 올릴 때 우리가 하느님을 모르고 산다면 완전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죽음이란 생물학적 삶이 끝난 다음의 상황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르는 삶이라는 논리가 선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 처녀의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이다. 열 처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신랑은 우리의 구원자 이신 주님이시다. 여기서 논 하고자 하는 것은 열 처녀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가를 예시해 준다.

우선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 과정이다. 언제 신랑이 오는지 알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잘 갖추어 놓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온다면 큰 낭패인 것이다. 또한 변함없고 한결 같아야 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인내인 것이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꾸준히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 깊고 세심해야 하며 모든 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인 것이다.

예컨데, 열 처녀 중 다섯 명은 지혜로웠고 다섯 명은 어리석다고 했다. 대비를 잘 하고 있는 다섯 처녀에 비해 나머지는 나태하고 인내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며 정확하게 바라보는 혜안도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예시한 바는 열 처녀 중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50% / 50% 인 것이다 엄청난 숫자이다. 과연 우리들은 이 지혜로운 처녀에 속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들 쪽에 속 하느냐 모두 한번쯤 숙고해 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한다. ■■■



2월 25일 본당 꾸르실리스타 십자가의 길 1



2월 25일 본당 꾸르실리스타 십자가의 길 2

## 세례 소감

# 김수연, 송지형, 황나현, 박석정

### 김수연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저는 무교였다가 친구인 박희원 세례나를 통해 작년 5월에 처음 성당을 찾았습니다. 당시 어떠한 마음이 저를 성당으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달이나 성당에 나오고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그 내용과 순서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교리수업을 통해 모든 절차의 의미와 그 역사를 배우며 기도문도 자연스럽게 입에 붙으면서 매주마다 미사가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교리수업은 예비 신자로서 믿음의 근간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수업을 듣고 미사를 드리며 저도 몰랐던 제 안의 신앙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리수업을 끝으로 드디어 주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오다니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무사히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주고 응원해 주신 신부님, 실장님, 그리고 모든 분당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신앙심을 키워나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송지형

제가 처음 성당을 나왔을 때 저는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성당을 한번 두 번 오다보니 언젠가부터 성당에 대한 소속감이 더 커져있었고 이는 제가 세례교육을 받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을 제 안에 모시고자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제가 세례를 준비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들로 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었고 교육 후반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갈 수 밖에 없어서 세례성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더욱 세례가 기다려지고 이번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㉑

## 황나현

세례를 준비하며...

저는 설레임과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황나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 셋 엄마인데 제 둘째 딸이 원하여, 성당을 찾게 되었고, 기도하며 사는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세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뭇헌에 가족 모두 온 지 2년이 되었고, 매 순간마다 긴장되고 힘들 때, 또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막막했던 외국생활에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잊었던 반가운 인연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㉑



2월 25일 일요일 예비자 교리

## 박석정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저는 가톨릭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성당도 가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미사를 드리게 됐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울림을 받았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치유 받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꾸준히 성당을 나오다 보니 점점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져서 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리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처음 성당에 오게 되고 교리를 준비하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행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도 저에게 '미사를 참여해야 한다' 혹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강요한 적 없었는데 제 스스로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결정한 만큼 더욱 열망과 믿음을 갖고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미사를 드리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후로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제 인생의 목표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성당에 나오게 된 것 처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살다보니 제가 계획하거나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힘들어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에게 닥쳐 올 모든일에 대해 하느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 믿으며 힘들 때마다 내안에 기쁨과 평화로 가득차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미사에 잘 참여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신부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당신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 (세례의 의미에 대한 짧은 묵상)

이상목 베드로 (뷔르츠부르크 공동체)

†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 신앙을 청합니다.

†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질문은 세례성사에서 사제와 예비신자가 가장 먼저 묻고 답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의례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날의 기억만이 인상깊게 남아있을 뿐 세례의 과정에 담긴 신앙인으로서의 고백과 그 속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세례는 물로서 원죄와 죄를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매우 상징적인 성사로 우리를 하느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성사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

어갈 수 없다." (요한 복음 3:5)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 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 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오 복음 28:19-20)

죄없는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는데 애초에 세례는 우리의 원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기위한 성사인데 어째서 씻을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자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마태오 복음 3:14)



2월 17일 뷁르츠부르크 공동체 미사 1



2월 17일 뷁르츠부르크 공동체 미사 2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였고 예수님은 이 물속에 잠겼다 가 다시 떠오르는 의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다면 부활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그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6:3-4)

이와 같이 세례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의식을 거치며 가슴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를 바치며 신앙을 청하게 되고 처음으로 하느님과 나와의 진정한 만남을 마주하는 의미 있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신앙을 청하고 또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혼에 새기고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례식을 거행하는 사제가 모든 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은 「신앙입니다」입니다. 🙏





2월 9일 청년미사 1



2월 9일 청년미사 2



2월 9일 청년미사 전 식사 준비



2월 9일 청년미사 후 식사

## 2024년 바이에른 가톨릭 한인 공동체 연합 피정 안내

- 일시: 10월 4일(금) 17시 - 6일(주일) 13시
- 장소: Diözesanhaus Vierzehnheiligen  
(Vierzehnheiligen 9, 96231 Bad Staffelstein)
- 주제: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시편 108,1)
- 참가비: 1인당 100 유로(청년: 80 유로)
- 참가신청: 3월 31일 까지, 각 공동체별로 신청

바이에른 4개의 공동체(뮌헨,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뷔르츠부르크, 레겐스부르크)가 함께 모여 피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정(避靜)이란 피세정념(避世靜念), '일상/세상을 피해 고요히 생각한다, 고요함에 머문다'는 뜻으로 '하느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가비 설명: 원래 소요비용은 2인실 기준 1인당 163.8유로(숙소 2박 107.8유로 + 식비 4식 51.8유로)이나 뮌헨 교구의 지원과 찬조(Spende)를 받아 보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인실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신청비에 20유로가 추가됩니다. (원금액: 1인실 기준 1인당 183.8유로)
- ⇒ 신청자가 확정된 이 후 일정과 세부사항(차량이동, 준비물 등)에 대해서는 각 공동체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신청자격은 15세 이상이지만, 혹 15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참가하기를 원하시면 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아이들의 참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름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weg 6A, 93051 Regensburg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